

### 은행 금리 9년만에 최대폭 인하라더니...

## 예금금리는 '대폭' 대출금리는 '썰غم'

2월 중 예금금리 0.61%P ↓·대출은 0.35%P ↓

최근 금융권의 '머니무브' 현상 둔화와 시중은행들의 자금난 해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 민첩하게 인하하면서도 대출금리 인하는 '시늬'만 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의 평균 금리는 연 5.40%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1월보다 0.6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1999년 4월(0.74%포인트) 이후 최대 수준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지난해 말 5.84%에서 지난 1월 6.01%로 급등한 뒤 2월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심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도 5.38%로 1월에 비해 0.60%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수신금리가 크게 떨어진 것은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말부터 1월까지 '붓물'을 이었던 은행들의 고금리 특판예금 상품이 급감한 것도 금리 인하에 주된 요인이 됐다. CD발행과 특판예금 판매 등을 통해 자금을 확충한 은행들

이 수신금리를 발빠르게 낮춘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각종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CD금리가 0.53%포인트나 떨어졌음에도 대출 평균금리는 0.35%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그나마 이같은 하락폭은 지난 1999년 5월(0.43%포인트) 이후 가장 큰 것이어서 은행들이 생색내기용 금리 인하 관행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의 '이중적 기대'는 지난 1월에 더욱 두드러진다. 당시 CD금리가 0.08%포인트 오른 가운데 대출 평균금리는 0.17%포인트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더딘 모습을 보인 것은 최근 자금난 해소에도 불구하고 주 수입원인 대출자산 운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대출금리 인하폭이 예금금리 인하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운용을 보수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데 일정 시차가 있는 것도 예·수신 금리 격차에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행남자기 '다기세트'

광주신세계백화점이 30일 봄을 맞아 자연미를 강조한 행남자기의 '포유'와 '드림' 다기세트를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격은 7만4천원선.

<광주신세계 제공>

### 韓·中 FTA 체결 되더라도

## 中企 절반이상 "매출 변화 없다"

중기중앙회 1천개 업체 조사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한국·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국내 1천개 중소기업업체를 상대로 한 한·중FTA 체결 후 예상 매출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6.6%가 "변화가 없거나 있어도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낸 업체는 20.1%로,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18.9%)보다 약간 더 많았다.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예상 증가율은 평균 25.7%였으며 감소할 것인 업체들의 경우 평균 25.9%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 FTA가 체결되기를 희망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5년 이내'라고 답한 업체가 42.7%로 가장 많았고 '2년 이내'(27.2%), '5~10년 이내'(1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중FTA 협상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점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32.8%), '중국이 높은 관세를 철폐'(19.5%), '통관절차 간소화 및 지역간 통관절차 통일'(18.5%), '비관세 장벽 완화'(12.5%), '한국의 무역피해 구제 강화'(11.7%) 등이 꼽혔다.

이밖에 한·중FTA 체결에 대비,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점으로는 '자금지원'(23.2%), '기술개발 지원'(22.2%), '중국 관련 정보제공'(16.6%)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 MK, 밤샘 현장경영 '이례적'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무박 2일' 점검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밤샘 현장경영에 나섰다.

정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 해외를 바쁘게 오가며 현장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1박2일 일정으로 잠을 거의 자지 않고 국내 사업장을 점검한 것은 최근 수년간 볼 수 없었던 일이다.

30일 현대·기아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울산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한 뒤 지난 28일 오전 충남 당진 현대제철 공장을 찾았다. 정 회장은 일 관계철소 건설현황을 점검한 뒤 직원들과 함께 점心和 저녁을 먹

으면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회장은 오후에 공장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정 회장은 이튿날 새벽 비가 오자 우선시 안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밖으로 나와 현장을 돌면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식사까지 한 뒤 오전중 서울로 올라왔다.

이처럼 정 회장이 이례적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1박2일 일정의 현장경영을 벌인 것은 최



근 칠스크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그룹 사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자 제철사업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서라는 게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일관제철소 건립에 5조2천4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최고 경영자로서 이를 현장에서 가까이 지켜보자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국세청 차장에 정병준씨 임명

오늘 광주 등 지방청장 인사



정부는 30일 국세청 차장에 영랑 출신으로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정병준(53·사진·행시 22회) 국세청 법안담당 세국장을 임명했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김갑순(행시 21회)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조성규(행시 21회)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발령했다.

신임 정 차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나와 국세청 법인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과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정책홍보관리관, 광주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국세청은 '빅3'에 해당하는 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에 대한 인사가 끝남에 따라 31일 광주·대구·부산·대전 등 나머지 4개 지방국세청장에 이어 본청과 지방청의 국장·과장급 간부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테크노파크 '제조공정혁신 심포지엄'

내달 1일 中企 대표자 대상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남현일)가 4월1일 대회의실에서 지역내 중소 제조업체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조공정혁신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기존 컨베이어 벨트 생산방식을 대체하는 셀(Cell) 생산방식의 세계적 권위자인 일본 위크셀콘설팅 콘타프코시 대표가 참여, 일본 중소 제조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공정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 등을 소개한다.

광주테크노파크는 2007년 초부터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이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 및 전자부품업체 33개사, 1천245명을 대상으로 2~3일 동안의 제조공정 혁신교육을 실시했으며 해외 연수와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중흥건설 '골드레이크 빌리지' 분양

중흥건설은 나주호 인근에 펜션형 콘도인 '골드레이크 빌리지' 24실을 분양한다. 공급 면적은 202㎡(61평), 168㎡(51평) 등 2가지로, 자연과 레저, 비즈니스 등 최근 트렌드를 두루 갖춘으로써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조감도>

일반 콘도와는 달리 전원주택의 쾌적함과 아파트의 편의성을 결합한 타운하우스의 개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호텔급 인테리어와 고급 마감재 등이 사용되며, 나주호의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녹색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인근에 '골드레이크CC'와 '중흥골



드스파&리조트'가 있어 골프와 스파, 물놀이테마파크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광주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며, 1가구 2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의 062-362-210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光銀 '플러스다모아' 시판

광주은행은 새로운 금융혜택을 종합한 금융상품 '플러스다모아'를 31일부터 판매한다.

정기예금 상품인 '플러스다모아'는 가입과 동시에 선이자를 지급하며, 만기 또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 개인 가입자는 급여이체, 적금 가입 여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라 특별우대금리(연 0.3%포인트)를 추가 적용하고 만기시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최장 5년까지 자동갱신을 해준다.

가입액은 100만원 이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나주호의 전세권

### 중흥 골드레이크 회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19·28·38·57평형

19·28·38·57평형

**골드스파&리조트**

19·28·38·57평형

19·28·38·57평형

**골드레이크빌리지**

51·61·71·81·91·101·111·121·131·141·151·161·171·181·191·201·211·221·231·241·251·261·271·281·291·301·311·321·331·341·351·361·371·381·391·401·411·421·431·441·451·461·471·481·491·501·511·521·531·541·551·561·571·581·591·601·611·621·631·641·651·661·671·681·691·701·711·721·731·741·751·761·771·781·791·801·811·821·831·841·851·861·871·881·891·901·911·921·931·941·951·961·971·981·991·1001

#### 오늘이 국내 국외 관광 여행사

062-325-5531 023-8821

#### 오늘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

#### 오늘이 여행사

장사기념행사